

어린이 안전 위협...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 시급

SOCIETY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광주·전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율 15% 그쳐 도로 폭·지형·사유지 등 심의 필요... 협의 어려워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심 승하차구역(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설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2건(2021년 26건·2022년 23건·2023년 23건) 등이다. 특히 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와 학원 등 하원 시간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안심 승하차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시차와 끝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 내 안심 승하차구역이 설



목포 삼학초교 주변에 설치된 '안심 승하차구역'의 모습.

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한 안심 승하차구역은 총 594개소(2022년 127개소·2023년 233개소·지난해 234개소)다. 지역 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중 안심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저조한 안심 승하차구역 지정은 지자체와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의 협의로 결정된다 보니 확대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도로 폭과 지형, 인근 주택의 공간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클 경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학교 내부나 사유지 주차장 등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정이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다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경찰 관계자는 "안심 승하차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린이들의 안전이기에 유관기관과 협의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정이 가능하다"며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45 🌧️ 당분 18:41
☀️ 예보 18:39 🌧️ 당분 06:41



광주	☁️	5~21
목포	☁️	5~17
여수	☁️	8~14
순천	☁️	6~18
구례	☁️	4~21
광주	☁️	2~18
임도	☁️	6~17
죽산도	☁️	6~12
진남	☁️	4~17
고동	☁️	4~17
진도	☁️	5~16

목포	☁️	02:18 / 14:49
여수	☁️	07:35 / 19:59
여수	☁️	09:30 / 21:42
여수	☁️	03:09 / 15:28

광주 49개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시교육청, 2027년까지 319개교 공사 마무리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49개교에 대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공사'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폐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실 내 국소배기장치 환기량을 높이고 후드모양 조정 등을 통해 환기 효율이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또 송풍기 풍량 조절 방식을 적용해 집중 조리시간 외에는 소음과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조리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 환기장치를 가동해 조리실 내에 조리 흡(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

농도 미세먼지) 등 유해입자가 잔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윤남고, 첨단고, 광주여고, 광주공업고 등 4개 학교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2월까지 총 127개교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48개교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총 319개교 대한 공사를 완료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종사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전남 기독교, 불교, 원불교 종교인들이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각계각층 윤석열 탄핵 촉구 '한목소리'

5·18민주광장서... 플래시몹 희망·용기 전달도

광주·전남지역 각계각층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은 1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내란 잔당세력들이 내란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암약하고 있는 실체를 이번 사법부와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나선 국민

이 윤석열을 구속시켰다"며 "하지만 사법부는 윤석열을 엄벌에 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고 윤석열의 목숨을 풀어줬다. 국민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석방한 사법부와 검찰의 행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노동자와 시민들의 구급은 묵인하면서 내란수괴에게 특혜를 준 사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어떠한 회색과 탄압도 마다하지 않고, 내란세력에 맞서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광주 충장로우체국과 오후 12시 5·18민주광장에서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을 선보이며 '탄핵 기각'을 우러하는 광주·전남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모아 전달했다.

불교·기독교 등 종교계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결정을 조속히 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서 교통사고 잇따라... 70대 3명 숨져

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남 순천경찰청 교통사고처리특별팀 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1분 전남 순천시 해룡면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70대 여성 B씨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는 A씨가 운전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후 4시20분에는 무안군 몽탄면 한 아산에서 70대 C씨가 몰던 경운기가 나무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돌 후 경운기와 나무 사이에 갇힌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숨졌다.

또 오전 6시20분 무안군 청계면의 한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D씨가 60대 남성 E씨가 운전하던 25t 화물차에 치였다.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조사 결과 D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기 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가 어두워 D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맞춤형 대책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 2~3배 웃돈 거래 기승

내일 KIA 광주 첫경기... 입장권 판매 글 속속 등장 야구팬들 '흥행 찬물' 우려 목소리... '차별 강화'

'2025 프로야구' 시범경기 티켓의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야구 팬들은 자칫 프로야구 흥행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3일 한국프로야구(KBO) 등에 따르면 오는 15~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야구 시범경기 예매가 지난

12일과 13일 오전 11시 구단 공식 앱과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올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시범경기에는 지난해 통합우승을 차지한 KIA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와 격돌하며 많은 야구 팬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인기를 반영하듯 인터넷, SNS 등에는 이미 시범경기

일정과 예매 총정리에 관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

티켓링크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좌석 선점과 암표 판매를 방지하고자 2025시즌 시범경기부터 응원특별석 및 테이블석에 대해 PC 예매 서비스를 중지한다. 별도 공지 시까지 해당 좌석은 모바일로만 예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주말 시범경기의 특별석(챔피언석·테이블석·응원특별석·서프라이즈석) 요금은 성인·청소년·어린이 차등 없이 1만 원, 일반석(K9·K8·K5·EV석)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무료다.

예매 홈페이지가 열리는 순간 2만여석



시범경기 3회(토) 기아타이거즈 vs 삼성 라이온즈	15,000원
시범경기 4회(토) 삼성 라이온즈 vs 기아타이거즈	15,000원
시범경기 5회(토) KIA 타이거즈 vs 삼성 라이온즈	15,000원
시범경기 6회(토) 삼성 라이온즈 vs KIA 타이거즈	15,000원

의 표가 예매됐다.

이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앱 등에 표를 사고파는 게시글이 속속 등장했다. 대다수 게시글은 정규시즌 수준의 금액 또는 2~3배 올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한 판매자는 '최저가, 거래 내역 많습니다. 명당입니다'란 문구를 내걸고

5000원에 판매되는 티켓을 1장당 1만 5000원에 팔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3루 K9석 117블럭 2연석(통로) 일괄 3만원'이란 제목으로 거래를 유도했다.

중고거래 앱에는 '티켓 삽니다' 등의 게시글과 함께 3배 이상의 가격에 표를 사겠다는 글도 보였다.

이처럼 시범경기 티켓부터 웃돈 거래되

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구 팬 정모소(36·계림동)는 "지난해 KIA 타이거즈가 통합우승을 차지해 기쁘지만, 시범경기부터 웃돈 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보면 자칫 프로야구 흥행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벌써 개막전 예매가 걱정된다. 지속적인 단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구단의 홍보와 제도, 팬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병근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암표가 나오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를 보려는 팬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값을 터킷을 구매해야 한다"며 "매크로를 이용해 다수 티켓을 구매해 사 람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암표 근절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